

✓ 진로교육 바로 알기

대한민국에 없는 新직업을 찾아라!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생겨나는 요즘, 아직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해외 유망 직업은 자녀가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해외 유망 직업 4 장애인잡코치

장애인의 취업활동을 도와주고 취업 후 업무활동을 지원합니다.

<하는 일>

장애인잡코치(Job Coach)의 주된 역할은 장애인에 대한 업무교육이지만,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취업활동과 취업 후 직장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며, 해당 장애인과 적합한 업무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국내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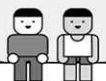
일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잡코치에 대한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시설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장애인잡코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직무지도원, 근무지원인, 직무보조인 등 잡코치와 유사한 직업**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업무적응과 고용유지를 위해 출퇴근, 작업기술, 대인관계기술, 임금협상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점차 장애인의 고용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포함한 사회과학계열이나 직업재활학과** 등을 전공하거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흥미 및 적성>

무엇보다도 **공공의식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측면의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무관리와 관련된 지식도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미래의 직업세계 해외 직업편)

✓ 진로상담, 똑..똑..



패션에 관심 있는 아이, 특성화고로 전학을 보내야 할까요?

Q 고1 남학생을 둔 얼마입니다. 아이가 중학생 때부터 패션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며 특성화고에 가길 원했는데, 끝이 바뀔 수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딱히 마음에 드는 직업이 아니라 일반고에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라도 특성화고로 전학을 보내는 게 나을까요?

A 자녀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니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지금이라도 자녀가 원하는 진로를 밟아나가도록 도와준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선, **전학을 결정하기 전에** 자녀가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봐주세요. 진로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학업이나 낯선 환경, 교우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단 **자녀와 대화를 나눠보시고, 평소 행동이 어떤지도 관심 있게 살펴봐주세요.** 그리고 **담당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전학은 해당 학교에 결원이 생겨야 가능하므로 전학이 용이한 편은 아닙니다. 관심 있는 특성화고가 있다면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자녀가 원하는 진로에 적합한지 확인해보고, 교무부에 문의하셔서 전학 가능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상담 사례)

「농업」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직업과 관련 학과를 소개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직업 소개 : 정밀농업기술자]

☞ 직업 개요

- 정밀농업은 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농작업의 효율은 향상시키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말하며, 이러한 신기술을 개발·연구 하는 사람을 정밀농업기술자라고 합니다.

☞ 직무 내용

- 지구과학 기술(지리정보체계, 인공위성 자동위치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주는 토양·기후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농업에 필요한 최적의 비료의 양을 가능하고, 농지 관리·작물 투입 등의 방법을 제공하여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 관련 흥미 및 적성

- 농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IT 기술, 기계공학 등의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양쪽 분야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알고 농업 수익 증대를 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진로탐색을 위한 대학교 학과 소개 : 생물산업기계공학과]

☞ 학과 특성

- 농업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국민 생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이용 과정에 공학적 원리와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주요 교육 내용

- 기계요소설계 : 각종 기계요소 설계를 위해 모든 기초역학을 총체적으로 응용하는 원리 및 기법 교육
- 트랙터공학 및 실습 : 트랙터의 구조 및 작동원리를 다루며 실습을 통해 트랙터 조작능력 함양
- 열역학 : 열역학 제1·2법칙을 이용해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원리 및 응용방법 교육

☞ 졸업 후 진출 분야

- 정부 및 공공기관 : 농업계·인문계·종합고교 기계교사, 협동조합·농협·수자원공사 등 관련 분야 공기업체 등
- 연구 분야 : 농업공학연구소, 농업진흥청, 농수산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등
- 기타 : 기계, 농업기계 관련 산업체

(출처: 커리어넷 학과정보)

✓ 진로소식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5월의 주제

자녀의 진로와 진학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오디오 팟캐스트 방송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가 5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주제를 다룰까요?

5월 11일 (월)	진로레시피 그리고 진로교육이란?
5월 13일 (수)	진로교육을 위한 인식변화
5월 18일 (월)	경제학으로 바라보는 진로찾기
5월 20일 (수)	세상도 변하고 행복도 변한다

• 청취방법

PC : 팟빵 웹사이트 → '진로레시피' 검색
스마트폰 : 팟빵·맘에 쏙 진로·e-진로채널 앱
→ '진로레시피' 검색



팟빵 앱

※ QR코드를 통해 팟빵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전국의 주요 문화재를 비롯한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주변의 문화시설을 방문해보세요.

- 문화재관람 : 조선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 무료 개방
- 전시관람 : 전국의 주요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관람 무료 또는 할인
- 도서관이용 : 전국 국공립 도서관 야간 개방 확대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참여기관 및 자세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http://www.culture.go.kr/wda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QR코드